

당·청 “원팀으로 국난 극복”

총선 뒤 비공개 만찬...국정운영 성과 위한 결속력 강화 다짐 개혁과제 시너지 기대...차기 지도부 선출 '文心' 영향력 관심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4·15 총선 승리를 계기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국정운영을 '레임덕'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당·청 간 결속력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총선 승리의

공을 돌렸고,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지도부의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기본적으로 총선 격려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향후 당·청 협력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취지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총선 기간 문 대통령이 50%를 넘는 높은 국정 지지도를 유지한 것이 총선 승리의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집권 후반기에는 대통령 지지도 하락과 동시에 당의 원심력이 강해지

기 마련이지만 국정 지지도에 힘입은 총선 승리를 계기로 청와대가 당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180석의 전례 없는 '거대 여당'으로서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만큼 당·청이 총선 승리를 국정운영의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대 과제인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관련해 민생 경제와 기업 지원 대책, 고용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 결과는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 지원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총선 이후 최우선 과제로 '국난 극복'을 계속 언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이나 포용국가·혁신성장 등 국정과제에서도 당·청 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8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 민주당 권력구도 개편에서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른바 '문심' (문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의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돼야 정부의 국정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총선을 거치며 당내 최대 계파 지위를 공고히 한 '친문' (친문재인) 진영의 표심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 '당권·대권 분리' 보완 고민

당 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8월 전대 앞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보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차기 당 대표가 대선에 뛰어들려면 임기를 6개월 정도만 채우고 중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 등 대선주자들의 전대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이 규정을 손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규정 변경을 바꿀 경우 당권·대권 분리의 애초 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당권·대권 후보들의 반발 가능성이 커 실제 개정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차기 당권 경쟁 구도의 핵심은 바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다. 민주당 당헌 제25조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당 대표가 임기 8개월 이상을 남기고 사퇴할 때에는 2개월 안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현 규정대로라면 새로 뽑힌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1년 3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현 이낙연 대표의 임기가 오는 8월 24일 끝나므로 대선주자가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내년 3월 9일 이전까지 임기 6개월짜리 당 대표가 되는 것이다. 또 새 대표 선출을 위해 또다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애초 '제왕적 대표'를 막고 공정한 대선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에 제윤경·정필모

당 조직 정비... '소수정당 당선자 제명' 유권해석 의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4·15 총선 후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당 조직을 정비했다.

우희중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 후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기간 중 모두 4인의 대변인 체제였지만 이제 시민당과 관련된 모든 문외는 제윤경 의원과 정필모 당선자 두 명의 대변인이 담당한다"며 "사무총장은 정은혜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우대표는 이어 "당선자들은 추후 각자의 주체적 선택을 통해 정당 활동을 하면 된다"며 "다만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 당선자 제명은 해당 당선자에게 여러 어려움이 되는 듯해 소수당으로 돌아갈 분들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당은 소수정당 몫으로 당선된 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당선자가 본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임기 시작 전 제명될 경우 당선인 신분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다. 시민당은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본 뒤 민주당과 추진 중인 합당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노동계 원로 초청 간담회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전 한국노총위원장들과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악' 오명 20대 국회 '유종의 미'라도 거둬라

임시국회 열었지만 진척 없어...18대 뎀 국회선진화법 처리

4·15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임기 말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힘을 모으는 취지로 21대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각종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다.

21일 국회사무처의 '대말(代末) 총선 임시회 현황' 자료를 보면, 16·17대 총선을 각각 마친 15대·16대 국회에선 5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았다.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낙선 인사를 하면서 숨 고르기 기간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17대 국회의 '임기 말'은 분위기가 반전됐다. 18대 총선이 마무리된 2008년 4월, 여야는 이미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

리 문제로 일찍이 '대립전선'을 쳤다. 여야는 총선 뒤 1달간 임시국회를 열고 총 7차례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을 이어가며 논쟁을 벌였다. 당시 야당이던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냈지만 부결되기도 했다.

19대 총선을 마친 18대 국회는 2012년 4월에 9일간의 임시국회를 열었다. 그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최후판과 전기톱이 등장하는 '집단 난투극'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18대 국회가 총선 뒤 이를 반성하며 국회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린 이 법으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행방해),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 폭력을 동반한 회의방해 금지 등이 도입됐다.

20대 총선을 마친 19대 국회는 2016년 4월 21~5월 20일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를 한 차례 개최했다.

무쟁점 법안 등 135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국회를 마무리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등이 이때 통과됐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의 숙원 법안이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통과가 무산됐다. 역대 임기 말 국회의 법안 처리 건수만 놓고 보면 17대 41건, 18대 63건, 19대 129건 순으로 증가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안철수 활동 재개

주말에 국민의당 혁신위

4·15 총선 이후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당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체제 정비와 혁신·비전 수립 등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안 대표가 직접 이끌 혁신위의 인선 및 활동 방향 등은 다음 주초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권은희 의원은 21일 "안 대표는 다리가 완치되지 않아 현재 깁스를 한 상태"라며 "다만 안 대표가 '다리 깁스를 풀 뒤 이번 주말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유시민 '알릴레오 시즌2' 마감

정치 비평 중단... '당분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할 집중'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21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을 마감했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 이사장은 마지막 알릴레오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종방연 형식의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KBS 최경영 기자, 양지열 변호사 등이 출연했다.

4·15 총선을 7개월가량 앞둔 지난해 9월 시즌2를 시작해 '범여권의 스피커 역할'을 재개했던 유 이사장은 반년간 주 2회 방송을 진행하며 수많은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섰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

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에서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며 조 장관을 적극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유 이사장은 총선 직전엔 '법진보 180석' 전망 발언으로 일부 선거구 후보가 낙선하는 손해를 봤다는 비판을 일부 여론 지지자들로부터 받기도 했다. 그는 결국 이 발언을 계기로 정치비평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내년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유 이사장은 당분간 재단 이사장 역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작가로서 집필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